



일본기업과 관련 손해소송을 제기한 정재원씨(오른쪽) 변호인단이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국무부의 개입 중단과 피해자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최호기 기자>

강제징용·위안부 대일 배상소송 미 노조·중국계 인권단체도 참여

노총산업별회의등 6개 단체 “적극지원” 일본기업 옹호 국무부 상대 반대 운동도

한인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대일 배상소송에 미 노조와 중국계 인권단체도 동참한다.

강제징용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정의회복위원회(위원장 정연진)는 30일 리틀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를 비롯해 중국계 인권단체인 2차대전사보전연합 등 6개 단체가 대일 배상 소송에 적극 지원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LA한인회, 한

미연합회, LA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과 힘을 합쳐 대일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한편 이번 소송에 개입해 일본기업 측을 옹호하려는 미 국무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내달 4일 LA항소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와 일본의 다이헤이오(구 오노다) 시멘트 회사간의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가주 항소법원(2지구 A)은 지

난 8월 중순 정씨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동결돼 있던 원고측 증인과 자료수집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올초 일본측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LA민사법원의 정씨 케이스 기각요청 거부명령에 대한 재심과 재심과정이 끝날 때까지 재판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 승인후 동결돼 있던 케이스 진행이 다시 전개된 바 있다.

한편 정의회복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본국의 ‘아름다운 재단’(이사장 박상증)으로부터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활동 지원을 위한 정의회복 기금을 전달받았다.

정연화 기자